

중문

닌나지 절의 보물인 오층탑과 관음당 등은 전부 이 중문(中門)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오몬이 난나지 절 전체의 입구인 데 비해 중문은 난나지 절에서도 종교적으로 중요한 영역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승려들의 거처도 성스러운 공간으로서 이 중문의 안쪽에 지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몬에서 중문 앞까지의 공간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聖)과 속(俗)의 구분은 오닌의 난(1467~1477년) 때에 난나지 절의 대부분이 소실된 이래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건 시에 예전에는 중문의 안쪽에 있었던 건물이 바깥 쪽에 지어졌고 이에 따라 공간의 영적인 역학(力學)이 변화했습니다.

중문 좌우에는 사천왕 가운데 두 사람의 상이 서 있습니다. 사천왕은 귀신들을 이끌고 악과 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세계의 수호신입니다. 사천왕에게는 각각 세계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중문에 있는 이들은 광목천과 지국천으로서 광목천은 모든 것을 내다보는 힘을 갖고 있고 서쪽 방위를 염중히 감독하고 있으며, 지국천은 밀교(密敎)의 세계관에서 동쪽 구역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